신동엽, 프로그램 하나 추가요~엠넷 '비틀즈코드'

등록 2013.12.04 13:25:28 | 수정 2016.12.28 08:28:11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MC 신동엽(42)이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탁재훈(45)을 대신해 음악채널 엠넷 '비틀즈 코드'를 진행할 전망이다.

'비틀즈코드' 관계자는 4일 "탁재훈의 출연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느냐. 신동엽과 출연 여부를 두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비틀즈 코드'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 유쾌하게 음악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 첫 방송을 내보낸 뒤 지난 9월 시즌2를 마감했다. 시즌3는 12월 중 방송 예정이다.

신동엽은 KBS 2TV '안녕하세요'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 채널A '젠틀맨', 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 등에 출연 중이다.

kafk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